

層以上에서 始作하여 木炭層을 지나 얼마 안되어 드물어지고 珪長岩系의 細石器가 木炭層附近에서 부터 몇點 나왔으며 第三石層에 가까워지면서부터 石英石器가 흔해지고 石器의 形態도 차츰 큰 것이 나왔다. 그러나 土器는 단一點도 遺物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無土器文化임에 틀림없다. (嚴相鎬地質課長의 結論은 河端丘가 發達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筆者와 鄭明鎬先生에게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유물분포와 지층의 구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研究資料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상세한 것은 앞으로 정식 報告書에서 다루겠지만 이곳에서 채취한 木炭의 C-14감정의 결과와 나오면 유물의 편년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앞으로의 기대는 더욱 큰 바 있다.

이번의 발굴은 아직 유적지가 연속되어 있어 년차계획으로 발굴을 마쳐야만 확실한 결과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發掘의 意義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韓半島에도 新石器時代에 앞서서 文化가 있었음을 證明하게 된 데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同時代 또는 이보다도 앞서는 文化遺跡址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더욱 광범위한 踏查와 더욱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을 器調하고 싶다. 끝으로 金元龍先生의 아낌없는 協助에 깊은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廣州 元堂里 胎封

尹 武 炳

지난 一九六一年 五月中旬에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所在 胎封 一個所가 盜掘되었다. 盜掘者는 近에 同面 光東里에 居住한 바 있었다는 洪某이라 하며 이대는 多幸히 里民에게 發覺 制止되어 그대로 埋沒되었다 한다. 그러자 洪某는 그 胎封 所在地 林野의 所有者인 同里居住 朴喜永을 피여 다시 그것을 캐내어서 賣却 分配키로 合議를 보고 目的을 達成한 후 出土遺物을 上記 朴喜永家에 隱匿 保管中 同面 支署員이 探知하는 바

가 되어 그事實이 上部에 報告되었다. 當時 文教部로부터 連絡을 받고 現地에 出張한 筆者는 廣州警察署에서 該遺物을 調査한 후 署長이 베푼 어준 好意로 自動車便을 얻어 現場을 다녀올 수 있었다. 盜掘場所는 이미 埋沒되어 內部 構造를 實地로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直接 目擊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강 그 內容을 把握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出土된 遺物은 大小 한벌의 白磁胎缸과 大理石質의 誌石 한 個이다. 이와같이 한셋트가 되는 胎缸은 그 후 梨大博物館과 李洪根氏에게도 各各 收藏되어 그중 李洪根氏 所藏의 白磁胎缸에 對하여서는 崔淳雨氏가 本誌 第四卷 第六號에 紹介하고 있다. 元堂里 出土의 胎缸은 이 李洪根氏 所藏品과 거의 같으며 胎封을 만든 해도 같은 弘治十八年이 되는데 그 胎誌文은 다음과 같다.

皇明弘治十四年二

月初四日未時生

王子敦壽阿只氏胎

弘治十八年二月十

九日亥時藏 (一一・二cm x 三一・四cm x 五・二cm)

誌文을 새기는 方式도 꼭 같다. 胎缸이 생긴 모양도 同一하지만 크기는 若干 작다. 즉 元堂里 것은 밖갈 큰 항아리의 全高 三六cm, 口徑 二一・三cm 蓋徑 一三・五cm 그 속에 들어 있던 작은 胎缸은 全高 二一・五cm 口徑 九・二cm 蓋徑 一一・五cm이다. 이들 胎缸에 대하여서는 崔淳雨氏가 資料를 모아 다른 機會에 다시 檢討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는 胎封의 藏置方法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胎封은 元堂里마을 前面의 언덕 봉우리 위에 있었다. 元堂里는 廣州郡 廳所在地 東北方으로 約 十五里 떨어진 慶安川邊에 位置하고 있다. 西南쪽에서 흘러내려온 慶安川이 이곳에서 迂廻하여 北流한다. 胎封이 있는 봉우리 즉 胎峯은 이 慶安川을 굽어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五萬分之一地圖에 標高 九四・五m의 小三角點을 標記한 봉우리가 바로 그곳에 該當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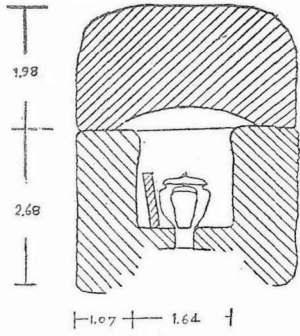
胎缸과 誌石은 圓形의 石函속에 넣어서 땅속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다

고 하는데 地表上에는 別로 마련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이 胎封의 存在를 가 르키는 碑石 하나가 세워져 있었을 뿐인 것 같은데 그 碑石은 若干 떨어진 南쪽 傾斜面에 떨어져 떨어져 있었다. 碑首를 荷葉形으로 만든 簡單한 것인데 그 한쪽 面에 「弘治十八年二月十九日亥時立」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다.

圓形石函의 크기는 直徑이 約三尺가량이 되고 높이도 그 程度가 되어 보였다고 한다. 甬口를 열어 보니 그 속에 胎封이 들어가 있었는 데 작은 胎缸은 큰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으며 誌石은 항아리 前面(西南面、이 胎峯의 地形은 西南向할)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文字를 새긴 面이 항아리 쪽으로 향해 하도록 뒤집어서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地表에서 이 石函까지의 깊이는 約五尺 넘는 것으로 記憶하고 있었다. 石函 周邊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으로 特別한 構造 없이 그대로 埋沒한 데 不 過한 것 같다.

胎封의 構造에 對하여서는 過去에 調査된 것이 거의 없어서 分明치 不 었다. 그런데 國立博物館에 備置되어 있는 記錄中에 一九三四年 野守健 氏가 調査한 復命書가 남아 있어서 그 正確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다 음에 紹介해 두고자 한다.

이 胎封은 平地에 孤立된 자그마한 봉우리 위에 있었는데 역시 그 地 表上에는 아무런 表識이 없었던 것 같다.



「胎峰의 構造는 丘陵上의 最高處에 曠을 파고 地表下約 七尺六寸의 曠 底에 花崗岩으로 만든 直徑 三尺 七寸二分、總高 四尺六寸六分의 圓形 蓋付 石函을 두었으며 그 內 部에는 길이 約二寸의 金箔 二片 과 鍔化된 錢貨 一個를 納藏한 蓋 付 白磁壺를 다시 蓋付 白磁壺에 넣어서 絹布로 싸고 그 옆에 大理 石의 胎誌가 놓여 있었다. 그리 하여 石函의 甬口와 函身의 接合

部에는 石灰를 발라서 堅牢하게 한 후 封土를 被覆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실은 實測圖는 野守氏가 作成한 原圖를 옮겨 놓은 것인데 元堂 里 胎封에 對하여 筆者가 現地에서 들은 바도 이와 비슷한 誌石을 짐작 케 한다. 이 野守氏 調査의 胎封은 宣祖 第十一王子 慶平君 功의 것인데 그 胎誌石에는

(表面) 皇明萬曆二十八年六月寅時生

王子阿只氏胎

(裏面) 皇明萬曆三十六年一月初七日藏

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 位置는 忠南地方이라고만 말해 두고 그 以上 詳할 수 없는 것은 盜掘의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實은 元堂里 胎封의 맞은편 봉우리 위에도 또 하나의 胎封이 있어서 이들은 서로 「앞 태봉」 「뒤태봉」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盜掘되어 버렸다고 믿 어지며 近來 몇해 동안에 나온 胎缸들은 모두 그 一派의 손에 의하여 市 中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之又齋의 海山帖

崔 淳 雨

李朝時代의 畫家들 중에서 韓國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造形氣質을 길 에게 풍기는 作家들을 추려내고 또 그 體系를 정리하는 문제는 아마 韓 國 그림을 연구하는 當面課題중에서 매우 중요한 焦點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 즈음 이러한 關心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系列로 생각되는 作家들 이 다음다음 注意를 끌게 되었는데 之又齋 鄭滲榮도 그중의 한분이다. 之又齋의 作品들을 보면 그 疎放하면서도 스피－의한 筆致, 그리고 늘 渴筆調로 숨가쁘게 그려지는 獨特한 技法과 線調 때문에 中國 그림에서 볼 수 없는 枯淡한 野趣와 수수한 浩氣같은 것이 느껴지기 쉬웠다. 이러한 零圈氣는 오히려 畫面에 한가닥의 生氣를 일깨워서 때로는 近代感覺과